



롯데칠성음료, 군산교육재단에 1500만원 장학금 기탁

롯데칠성음료(주)가 군산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1,500만 원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탁했다.

18일 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영준 군산시장과 롯데칠성음료(주) 서지훈 상무와 박재동 군산공공장장 등이 참석해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기업의 마음을 전달했다.

롯데칠성음료(주)는 '내 고장 사랑 캠페인'의 하나로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어 지역 교육사업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서지훈 상무는 "주류시장도 여러 경제적인 상황으로 호황은 아니지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당연한 책무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산의 미래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 죽향동, 남원카페와 제과류 나눔 협약 체결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남원카페(대표 윤운서)와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과 따뜻한 복지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제과류 나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내용은 남원시 죽향동과 남원카페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나눔 문화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남원카페는 정성 담아 구운 빵을 죽향동에 제공하며,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는 제공받은 물품을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1일가구 소통행정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관내 주민들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약속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실명예방재단, 무료 안과 검진

남원시와 한국실명예방재단은 18일, 산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지난해 금지면 문화누리 센터에 이어 2년째 계속되는 사업으로, 노령층의 실명 예방과 고품질 안과 질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해 기획된 사업이며, 안과 전문의를 포함한 총 9명의 한국실명예방재단 소속 직원과 보건소 산내면 직원 시력 측정, 굴절이상 확인, 안압 검사, 세균 등 현미경 검사, 안진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전문적인 정밀 검사를 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협, 제2기 여성대학 교육 수료식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최근, 남원농협 고령종합시설 2층 대회의실에서 제2기 남원농협 여성대학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서는 지난 3월부터 여성 리더십 건강·가정 관리 및 농업사업의 이해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강의를 큰 호응과 열정으로 수강한 109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여성대학 수료생들은 농업·농촌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2기 남원농협 고향주부모임'을 조직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 사랑 전달할 것”

IWC전북과 완주청년회의소, ‘렛츠미’ 행사…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 전해

비영리단체인 IWC전북과 사단법인 완주청년회의소가 주최한 ‘렛츠미’ 행사가 지난 15일 완주 카페 애드리브에서 성황리에 실시됐다.

이번 ‘렛츠미’ 행사는 어린이부터 대학생 청년 층까지 다양한 참가자 100여명의 후원을 받아 쌀과 생필품을 완주에 거주하고있는 홀몸 어르신 50가구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으로 전북에서는 첫 번째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 군의회 유익식 의장 윤수봉 도의원, 유이수·심부건·최광호 군의원, 국영석 전 도의원 등이 참여해 봉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홀몸어르신들에게 전달한 물품은 쌀10kg 물티슈 1박스, 라면 박스, 고추장 두유, 초코파이 등 먹거리와 삼투와 바디워시, 치약 칫솔 등 일상에서 필요한 각종 생필품을 두루 담았으며, 무더운 여름철 사용할 수 있는 여름베개 등을 후원받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IWC전북 김현진 대표와 완주청년회의소 송형섭 회장 카페 애드리브 김수연 대표는 많은 분들이 관심과



도움으로 홀몸어르신들에게 의미 있는 후원품을 전달할 수 있어 따뜻한 시간을 보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해 나가겠다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완주=열재복 기자



유니드비티플러스 순창군 옥천요양원에 마루 교체

옥천요양원(원장 박승순)은 지난 17일 (주)유니드비티플러스(대표이사 함상준)의 후원으로 진행된 노후 마루 무상 교체 작업의 완료를 기념하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총 3,500만 원 상당으로, 시설 내 노후된 바닥을 교체해 어르신들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현판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함상준 (주)유니드비티플러스 대표이사,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산림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옥천요양원은 생활어르신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주)유니드비티플러스에 전달했다. 또한 순창군은 지역 내 복지시설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동 회사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부안 달콤댁 김현아 대표,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부안군은 (주)달콤댁의 김현아 대표가 한국신지식인협회가 주관한 제45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K-푸드 분야 2025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지식인은 1998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지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 기여한 인물을 선발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칭호로 농업·중소기업·문화예술·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다.

김현아 대표는 한과와 전통 디저트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K-푸드 가치를 이끌고 있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기술을 아낌없이 나누는 등 현장 교육에도 힘써왔다.

또 그는 2024 코리아 웰드푸드 챔피언십과 2025 대한민국 국제 요리대회와 경영대회에서 각각 국회의장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부안에서 생산되는 부안 밀을 활용한 제품 개발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김현아 대표는 “앞으로도 부안밀과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교육 활동을 통해 부안의 농산물 소비



확대에 이바지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력으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 김현아 대표의 신지식인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다”며 “앞으로도 부안의 활력을 더해줄 좋은 사례가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쌍교동성당, 바자회 수익금 중 1000만원 기부

남원시는 천주교 전주교구 남원 쌍교동성당(주임신부 이상용)이 제95회 춘향제 기간 동안 개최한 음식 나눔 바자회 수익금 중 1천만원을 남원시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경식 시장과 성당 이상용 주임신부, 장진석 노인복지관장, 이준무 사무총장 등 9명이 참석, 기부금 전달 후 환담을 나누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관내 유·초·중·고 교장 대상 연수 개최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지난 17일, 웰파크 호텔에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40명을 대상으로 '학교 자치와 학교장 리더십'을 주제로 한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학교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장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학교 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 그리고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이 핵심이라는 공감대 아래 진행되었다.

강사로 초청된 오재길 용인 보라초등학교 교장은 '교장이 변화야 학교가 바뀐다'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학교 자치는 교사나 학생에게만 맡기는 일이 아니다. 교장이 먼저 권한을 나누고, 교사와 학생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존중할 때 비로소 자치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적인 학교 문화는 지시와 통제의 리더십이 아닌, 참여



와 소통의 리더십에서 가능하다”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소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카페 '인디비주얼', 장수군에 성금 300만원 기탁

장수군은 임실군 운암면 소재 카페 '인디비주얼' (대표 박춘열)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카페 '인디비주얼'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기탁은 지난 11일 장수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아동의류 500벌을 기탁한 데 이은 나눔 실천으로 평소 지역과 상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대표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귀감이 되고 있다.

박춘열 대표는 “장수군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주천면 기관·사회단체장, 장학금 기탁

진안군 주천면 기관·사회단체장 일동은 지난 17일 진안 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여한 최정수 노인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 나마 보태고자 기관·사회단체장들이 뜻을 모았다”며,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진안사랑장학재단 전춘성 이사장은 “주천면 기관·사회단체에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꿈을 키우는 데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남원산동면, 하지감자 수확… 취약계층 위해 사용

남원시 산동면은 지난 1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랑의 농산물 함께 심고 나누고'를 통해 수확한 하지감자 10kg 120상자를 마을 경로당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산동면에서는 해마다 자체 특화사업인 '사랑의 농산물 함께 심고 나누고'를 통해 매년 관내 유류농지를 활용, 기관 및 단체의 자원봉사자들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농산물을 직접 파종, 재배하여 취약계층과 주변 이웃에 전달하는 뜻깊은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안길재 산동면장은 “해마다 농산물 나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